



희망! 풍선에 담아 날려보내

새해 첫날 청성산 정상에 오른 포천시민들이 한해 소망을 기원하며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다.

포천 지역 교통여건 개선 논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포천경찰서(서장 김영배)는 지난해 12월29일 소회의실에서 경비교통과장, 포천시의회, 포천시청, 포천교육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협력단체인 포천모범운전자회, 이장단체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시설담당자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 교통사고 위험구간 및 주민들의 민원이 잦은 지점에 대해 경비교통과장이 빔프로젝트 화면을 통해 교통안전시설물의 개선과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사항의 문제점을 일일이 설명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민원해결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개선해야 할 사항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11개소에

지향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경찰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음주운전, 가족의 행복이 파괴됩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전개

포천경찰서(서장 김영배)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모임 등으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교통캠페인을 실시했다.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찰,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단체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29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포천시 신읍동 일대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유흥가 주변에서 가두행진과 “음주운전으로 가족의 행복이 파괴됩니다”라는 내용의 어깨띠와 “음주운전 추방”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했다. 이날 교통 캠페인에 참석한 경찰



포천경찰서(서장 김영배)는 구급 28일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모임 등으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교통캠페인을 실시했다.

및 유관단체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까지 빼앗는 살인행위이므로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단란한 가정이 파괴되어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 및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음주운전을 추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향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개성과 비전이 있는 위대한 도시 만들자”

포천시청 시무식 갖고 새해 업무 시작

포천시는 지난 2일 오전 청사 대강당에서 박운국 시장 주재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각 사업소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박 시장은 시무식에서 “살기 좋은 일류도시, 위대한 포천시”의 비전을 안고 일류의 자치경영, 풍요로운 문화복지, 친환경 지역개발, 도농복합 균형발전 등의 4대 시장방향을 윈수하는데 각 부서가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 올해에는 포천시가 수도권 위성도시가 아닌 자족기능을 갖춘 개성 있는 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해 인구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35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학재단 조성과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



포천시는 지난 2일 오전 청사 대강당에서 박운국 시장 주재로 시무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인종합복지타운 설립, 권역별 실내체육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 포천종합무역센터 설립 등의 2006년 새해 계획을 밝힌 뒤, 800여 공직자와 16만 시민이 한마음 돼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의 땅 포천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지향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 법무행정 평가결과 2년 연속 최우수

포천시는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말에 실시한 2005년도 법제·소송 등 법무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2004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도내 31개 시·군 중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포천시는 법무행정업무를 의회법무부서에서 의회관련업무와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 연초에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자치법규 일체 정비 계획을 수립해 이를 착실히 추진하여온 점과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담당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는 이 같은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만족하지 않고 보다 차원 높은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향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목회단상

사랑의 웅달샘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깊은 산골 웅달샘 많은 미물의 길손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준다 마셔도 마셔도 다함이 없이 채워지는 웅달샘.

이탈리아 제노아 사원(寺院)에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선사한 에메랄드로 만든 단지가 보존되어 있다. 이 단지에 대한 전설이 남아 있다.

솔로몬 왕은 시바 여왕의 선물을 받고 대단히 기뻐하여 연명(延命)의 약 즉 사람이 죽어갈 때 마시면 얼마동안 살아서 유언도 할 수 있다는 묘약을 이 단지에 보관하고 단단히 봉하였다.

그 후 솔로몬 왕은 가까운 부하들로부터 세 번이나 이 약을 나누어 달라는 간곡한 청을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 얼마 뒤에 솔로몬 왕은 단지를 가져다가 처음으로 봉인을 뜯었다. 물론 자기 자신이 얼마동안 더 연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단지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묘약도 오랫동안 완전히 말라붙고 말았던 것이다. 이 전설에는 귀중한 교훈이 담겨 있다. “나”는 에메랄드로 만든 시바 여왕의 단지보다 더 귀중한 존재다.

그리고 나의 속에는 솔로몬

의 연명(延命)의약보다 더 값진 (사랑의샘)이 있다.

사랑의 샘은 퍼낼수록 맑아지고 그 양도 더 많아진다. 봉인(封印)을 하고 이기적인 용도만을 생각하며 기다리면 그 샘은 어느새 말라서 나에게는 쓸모가 없어진다.

“매마른 솔로몬의 약단지!” 어쩌면 그것은 현대인을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랑은 나를 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더 불어오는 묘약이다. 그래서 성서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

요한복음15장12절 “내가 너희를 사랑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문의) 031-532-2489

장애인석 좋은 위치에 설치된다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 조례안 마련

포천시는 시가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좌석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9일까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포천시는 각종 공연장 내 장애인 좌석이 관람석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설치돼 이용에 불편이 있어 왔다고 지적하고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천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연시가 관리·운영 (위탁운영 포함)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 즉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좌석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 시,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아울러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 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나 전용통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자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거나 시가 위탁 관리하는 시설이 이 조례규정에 적합하도록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이나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오는 9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www.pcs21.net)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사회복지과 복지행정부서(031-538-2211)로 문의하면 된다.

지향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탐방 우리지역 지킴이-지역방범대 ㉞ 내촌면어머니자율방범대 대장 김현숙

장학금 지급 등 활동역량 확대

“화합과 단결로 똘똘뭉친 내촌면어머니자율방범대는 지역 지킴이로서 역할과 포천 최고의 어머니방범대로 성장하기 위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촌면어머니자율방범대는 지난 2000년 11월 30일 창설돼, 현재 김현숙(49) 대장에 이르고 있다.

김현숙 대장은 일반대원으로 활동해 오다 지난해 1월 12일 청소년 선도를 최우선으로 실천한다는 목표를 세워내내 내촌면어머니자율방범대 대장과 포천시어머니자율방범대 부대장을 역임하고 있다.

내촌면어머니자율방범대는 총 2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박복례 부대장, 김순복 총무, 이금숙 감사가 임원진으로 포진하고 있다. 내촌면어머니자율방범대는 포천에서 가장 많은 대원을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대원들은 대부분 직장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업주부는 많지 않다.

방범활동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3~4명이 한 개조로 활동하고 있다.

김 대장은 대원들이 근무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매

일 근무를 체크하고 있다.

평상시 도보와 각 리별 순찰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방범대는 경찰과 공초에 교통안전캠페인과 음주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활동은 미약한 상태다. 또 포천시의 여성단체협의회와 협조해 각종행사도 교통봉사 등 노력봉사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김 대장은 “지역 순찰활동에 있어 지원금의 부재와 차량유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자립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촌면어머니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 내촌

파출소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내촌면생활안전협의회(회장 이윤순)는 하복과 춘추복 등 근무복을 마련해 주는 등 방범대의 사기양양에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내촌면어머니자율방범대는 인원확충과 적극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대장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인원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투철한 봉사의 마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할 대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촌면어머니자율방범대는 자립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김현숙
내촌면어머니자율방범대 대장

매달 회비 1만원을 적립해 내촌중학교 졸업식에서 매년 1명씩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도 하다.

지향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차별화된 식품을 선도하는 기업 “영동식품”

귀하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代表 文幸吉

“20년간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만을 제조·판매하여 소비자에게 보답하겠다는 신념은 변함없습니다”



생산품목

- 영동국수·소면 ■영동메밀·갈국수 ■곰표국수·소면·갈국수

■본사 :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359-2 ■전화 : 031-535-5773 ■팩스 : 031-534-13